

기고

꿈을 이루고 싶다면 끊임없는 준비와 도전으로

경희인(in) 실리콘밸리 : ① 변영호 동문

김도훈, 유재욱, 류성한 학생

#.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첫 순서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 Amazon.com에 재직 중인 변영호(컴퓨터공학 2005) 동문의 이야기다.

“아마존닷컴에서 웹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도구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밴쿠버 지사에서 만난 변영호(컴퓨터공학 2005) 동문의 담백한 자기 소개였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첨단산업의 대명사와도 같은 실리콘 밸리 기업이 아니다. 변 동문 역시 이번 글로벌융합설계장학 해외탐방을 통해 만난 동문 중 유일하게 실리콘 밸리 밖에서 만난 사람이다.

직구족에겐 아마존닷컴이란 이름이 익숙할 것이다. 아마존닷컴은 1994년, 최초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하며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 지금은 자신들의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종합 IT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했다.

직업인을 만나 ‘왜 이 일을 선택했나’ 하고 물어보면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보니’ 하고 대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변 동문은 달랐다. 처음부터 개발자였고 처음부터 IT였다. 다만 그가 아마존닷컴에 정착하기까지 거친 길은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가 처음 노린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비주얼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이 있어요. 그 도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IT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주얼스튜디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공 서적도 무조건 원서로만 샀다. 미국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영어



아마존닷컴에서 만난 변영호(컴퓨터공학 2005) 동문은 여러 도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지금 돌아보면 각각의 경험이
여기 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우선 익숙해지고자 함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학생 파트너(MSP)’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으로도 활동했다. MSP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IT 관련 교육과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과정에서 자사의 미래에 쓰일 인재를 찾기도 한다. 변 동문에게도 활동 중 미국 본사 인턴 제의가 왔다고 한다. “좋은 기회였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미국 진출을 뒤로 하고 졸업 후 변 동문은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취업 전선에 내몰린 이들이 모두가 바라마지않는 대기업이지만 변 동문은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고, 퇴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결정이었다. “삼성에선 다섯 명 중 세 명이 박사였어요. 논리력과 공부량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큰마음 먹은 결정이었으나 결국 그가 유학 길에 오를 일은 생기지 않았다.

“유학 준비 하다가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과 스타트업(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디자인을 하고 저는

개발을 맡아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개발했지요.”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스타트업에 2년의 시간이 들었다. “대기업에 있을 땐 무슨 일 하든지 설명 안 해도 인정받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은 급여도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변 동문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스타트업은 오히려 내 사업이고, 개척해야 해요. 일단 잘 키워서 크게 만들면, 그 다음은 잘 풀리죠.” 변 동문 형제가 창업한 청소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홈마스터’는 지금도 변 동문의 동생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근 한 중견기업에 인수됐다고 한다.

“지금 돌아보면 각각의 경험이 여기 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이 궤도에 오르고 다시금 유학을 준비하던 변 동문을 아마존닷컴이 불렀다. 그간의 이력을 잘 정리해둔 덕분에 먼저 아마존닷컴이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변 동문은 기술 면접 경험을 일러줬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조건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빈 칸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처음엔 빈 부분을 마음대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이 면접과정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같이 일할 사람

을 뽑는다는 거였어요. 여기 조건이 없는데 이런 어떤 형태로 풀어내야 좋겠는가? 면접관과 대화 하면서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조건을 매워가야 했던 거죠.”

국내 대기업, 인수에 성공한 스타트업, 글로벌 IT 기업까지 변 동문의 경력은 빛나보이긴 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도전했던 갖가지 공모전은 잘 된 적이 없고 MSP도 몇 번 도전 끝해야 뽑힐 수 있었어요. 인턴 중에도 난관과 좌절을 겪었고 삼성에서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절히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족함조차 확인할 수 없었겠죠.” 빛나는 경력을 만든 것은 끝없는 도전과 실패, 실패가 준 경험이었다.

“한국에 아이폰이 처음 소개된 2009년에 동생과 ‘ATM Finder’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학생에게는 큰돈을 벌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당시만 해도 은행 ATM기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변 동문 형제는 주거래 은행의 ATM기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거만 했지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없었죠. 유지보수가 안되니 혹평이 쌓이고 매출도 없어서 앱스토어에서 철수한 경험이 있어요.” 이때의 경험은 스타트업 운영의 밑거름이 됐다.

변 동문은 도전을 권했다.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 되긴 했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에 진출했지만 그 전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고 아마존닷컴만 해도 두 번이나 탈락했어요.”

현재 그의 옆엔 9수 끝에 아마존닷컴에 입사한 동료도 있다고 했다. 역사를 전공하고도 하고 싶은 일을 찾다 아마존닷컴에 발을 들인 동료도 있다고도 했다. “20대에 바라본 10대 시절, 30대에 바라본 20대 시절은 분명 달라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에 변 동문은 택하지 않았던 한 가지 도전을 꼽았다. “ATM Finder를 개발했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신저를 같이 만들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네이트온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관심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쓰는 그 메신저가 됐네요.” 그 때 도전했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변 동문의 웃음은 끊임없는 준비와 도전이 만든 결과였다.



대학주보 67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대상
 - 우리학교 1~3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전형 일정
 - 지원서 작성 : 8월 27일~9월 9일
 - 면접 일시 : (국제)9월 11일 (서울)9월 12일
 -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 1차 입사지원서(지원서 작성 기간 중 제출) - 면접일 당일 면접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업무
 - 학내뉴스 아이템 발제 및 취재
 - 온라인 혹은 지면발행 기사 작성
-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 취재 기회 제공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메시지: 대학주보 페이지 접속 후 관리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 문자 : 010-4930-4955 (최명규 편집장)
 - 이메일 : khunews@khu.ac.kr
 - 전화 : (서울캠퍼스 편집실)02-961-0095 (국제캠퍼스 편집실)031-201-3232